

온투법에도 P2P '상환 지연'... 해명은 돌려막기 의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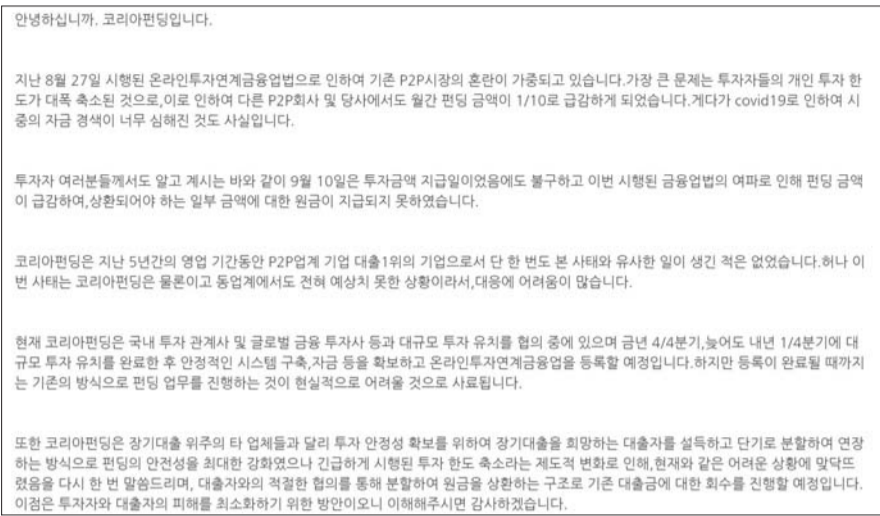
코리아펀딩·타겟펀딩 상환 지연 다수 제품 동시 지연... 부실 의혹 금융당국, 공지 후 후속 조치 없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을 시행한 지 보름 만에 벌써 2개 업체에서 대규모 상환지연을 발표하면서 P2P(개인 간) 금융업계에 위기가 감돌고 있다.

해당 업체는 재빠르게 해명을 공지했지만 석연치 않은 해명에 '돌려막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4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P2P 금융업체 코리아펀딩과 타겟펀딩이 자사 P2P 투자상품에 대한 상환 지급 지연 안내를 공지했다.

당초 코리아펀딩은 지난 10일 원금과 이자 상환을 앞두고 있었으나, 당일 늦은 시각까지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코리아펀딩 측은 다음날인 1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50여개가 넘는 상품에 대한 상환지연 안내를 공지했다.



지난 11일 코리아펀딩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상환 지연 안내 공고를 게시했다. /코리아펀딩 홈페이지 캡처

코리아펀딩 측은 "지난 27일 시행한 온투법으로 인해 P2P시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 개인 투자 한도가 대폭 축소된 점, 이로 인

한 월간 펀딩 금액의 급감이 결정적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코리아펀딩 측은 투자 안정성 측면을 고려해 '즉시지급펀딩'을 제외한 펀딩을 중단한 채 기존 대출금 회수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당일 또 다른 P2P 금융 업체인 타겟펀딩도 자사의 상품 대부분에 대한 상환지연을 공지했다. 타겟펀딩도 마찬가지로 '온투법으로 인한 투자 축소 및 여건 후퇴'를 상환 지연의 이유로 내세웠다. 타겟펀딩 역시 신규 펀딩을 중단한 채 추이에 집중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두 회사의 공지가 석연치 않은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리파인낸싱(대환)상품의 경우 투자위축이 상환 지연의 이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업체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선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대환상품 외에도 동산담보를 포함한다수의 제품이 동시에 상환지연을 발표한 점, 신규 투자금이 줄어들어서 기존 상품 지급 지연이 발생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돌려막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P2P금융업체 관계자는 "P2P금융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상환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다시 지급하는 구조"라며 "이들 업체가 해명으로 내세운 '신규 투자 유치의 어려움'이 상환 지급과 무슨 연관이 있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 채무자의 부실이 아닌 신규 투자금이 상환과 연결됐다는 것은 '돌려막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부실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투자자 주의사항만 공지한 채 별도의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온투법 시행과 동시에 감사보고서를 보고 받았으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전체 237곳 중에서 78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해당 업체의 명단의 공개 의무는 없다며 감사보고서 제출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카드사, 재난지원금 덕에 한숨 돌렸다

8개 카드사 순익 18.9% 증가 해외결제 수수료 등 비용 절감 카드사 연체율 1.38%로 하락

올해 상반기 카드사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는 부진했지만 재난지원금 특수에 해외결제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절감된 덕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중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IFRS 기준)은 1조11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1776억원) 증가했다.

총수익은 656억원이 늘었다. 카드론 수익이 크게 늘었지만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줄면서 수익 증가폭은 둔화됐다.

총비용은 1120억원이 줄었다. 해외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업무제휴와

대손비용이 감소했다. 건전성 지표도 양호하다.

카드사 연체율(총채권 기준)은 1.38%로 전년 동월 말 대비 0.23%포인트 하락했다. 신용판매(-0.11%포인트)와 카드대출(-0.31%포인트) 부문 연체율이 모두 개선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누적)는 1억1253만매로 전년 동월 말 대비 3.5%(383만매) 늘었다. 발급매수 증가율은 지난 2019년 6월 말 6.3%에서 2019년 12월 말 5.6%로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모집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 발급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체크카드 발급매수는 1억1159만매로 전년 동월 말 대비 0.2%(19만매) 감소했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424조7000

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1조3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율이 1.0%에 그쳤다. 법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액은 각각 5.1%, 0.3% 감소했다.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액은 5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000억원) 늘었다. 카드론 이용액은 10.5%(2조4000억원) 증가한 반면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5.7%(1조7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둔화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건전성 지표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향후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에 대비해 연락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250명 규모 하반기 채용

신입행원 공채·전문분야 수시채용

신한은행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20년도 하반기 신입행원 공개채용 및 전문분야 수시채용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총 250명 규모로 진행한다.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 ▲기업금융/자산관리(WM) 경력직 수시채용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수시채용 ▲디지털/ICT 수시채용 석·박사 특별전형 ▲ICT 특성화고 수시채용 ▲전문분야 비스포크(Bespoke) 수시채용 등이다.

먼저 14일부터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을 서류전형, 필기시험, 직무적합도 면접, 최종 면접 순으로 진행한다. 이 중 직무적합도 면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개별 화상면접으로 전환해 인공지능(AI) 역량 평가 등 다양한 면접 프로그램으로 지원자를 다각도로 평가할 예정이다.

기업금융/WM 경력직 수시채용 역



신한은행 본점 전경

시 14일부터 진행한다. 올해 4월 신설한 기업금융 경력직 수시채용에 WM 직무를 추가하는 등 채용 영역을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 과정의 서류접수 마감일은 채용별로 상이하며, 상세내용은 신한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도입한 디지털/ICT 수시채용을 통해 ICT 역량과 디지털 전문성을 가진 핵심인재를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디지털/ICT 수시채용 석·박사 특별전형을 신설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롯데카드, 고위드와 스타트업 법인카드 출시

실시간 금융정보 기반 여신한다

롯데카드가 B2B(기업 간)금융솔루션 핀테크 기업 고위드와 제휴해 스타트업 전용 법인카드인 '고위드 롯데법인카드(사진)'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위드 롯데법인카드는 고위드로부터 제공받은 스타트업 실시간 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여신한도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들이 재무적 증빙 한계로 인한 법인카드 발급 제한을 개선한다.

법인카드 신청 절차도 축소했다.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는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한 총 13종의 서류가 필요하다. 반면 고위드 롯데법인카드는 고위드 홈페이지에서 법인회원 개설신청서와 법인카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주명부와 공인인증서만 등록하면 된



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에 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위드 홈페이지를 통해 IT 소프트웨어·장비 분야인 AWS, MS 365, 드롭박스, 애플 전자제품 등 결제 시 최대 55%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우량 스타트업 입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이 1~2년 밖에 되지 않은 경우 재무증빙이 어려워 법인카드를 신청할 수 없었다"며 "고위드 롯데법인카드로 국내 많은 스타트업에 법인카드 발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KB국민은행 공인인증서 없이 상품 가입

KB국민은행은 웹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KB모바일브랜치'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KB모바일브랜치는 앱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지 않고,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신분증 촬영 등 비대면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인고객 누구나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한 서비스다.

이용 방법은 ▲영업점 직원을 통해 전송 받은 URL 접속 ▲직원명함 또는 상품 안내장 상의 QR코드 촬영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연계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신 5종(요구불예금 및 예·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퇴직연금(DC)가입 ▲가계대출(신용, 전세, 주택담보, 자동차) ▲카드(체크, 신용) 등 총 39종의 상품 가입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하나은행, 업계 첫 모바일현금 서비스

하나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은행권 최초의 자금관리서비스(CMS) 기반의 '하나원큐 모바일현금' 서비스를 선보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종교단체에서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로 현장 행사를 대체하고 현금 또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현금은 단순 계좌이체 방식에 불과해 현금 내용, 종류, 현금한 사람의 구분 등을 위해선 종교 단체에서 교인에게 일일이 연락해 확인하는 등 번거로움이 따랐다.

'하나원큐 모바일현금' 서비스는 별



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SMS문자 ▲교회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화면 메뉴 ▲QR코드 ▲NFC방식 등으로 손쉽게 현금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간편비밀번호(6자리 숫자) 만으로도 종교 단체별 전용 모바일 현금에 접속해 편리하게 현금 할 수 있다. /사유리 기자 yul115@